

[보도자료] 쿠팡, 가구 전용 보험상품 출시 업계 최초 무상보증·파손보험 도입

2026. 9. 7.



- 가전 및 전자제품 중심으로 운영하던 안심케어 서비스, 가구 카테고리 전격 확장
- 파손 수리비 지원 및 제조사 보증기간 이후 고장까지 3년간 보장
- 적용 브랜드 꾸준히 확대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 제공

2026. 09. 07. 서울 - 쿠팡이 기존에 가전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쿠팡안심케어’ 보험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가구 카테고리까지 확대하고, 업계 최초로 가구 무상보증 및 파손보험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고객이 가구를 구매한 이후 겪는 파손이나 품질 문제에 대한 고충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영역을 전격 확장했다.

지난 7월 도입한 가구 안심케어 보험은 쿠팡에서 구매한 가구가 외부 충격으로 파손되거나 제조사의 기본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 발생한 고장에 대해 수리비를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제조사 기본 보증 기간을 포함해 배송 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까지 적용한다.

보상 범위도 실생활의 고충을 세심하게 반영해 폭넓게 구성했다. 침대나 소파 프레임 및 다리 파손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발생 시 2회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옷장 경첩이나 서랍장 레일 등 기능상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이 끝난 후에도 총 보상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수리비를 보장한다.

고객은 각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보상 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가구 종류와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2년 가입 시 4만5000원, 3년 가입 시 6만원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리를 마친 고객은 롯데손해보험 앱을 통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수리 작업은 제조사가 공식 지정한 서비스 센터나 협력사가 안전하게 진행한다.

쿠팡은 현재 사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룸, 까사미아, 한샘, 데스크, 시디즈 등 주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당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적용 브랜드를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쿠팡만의 차별화된 배송 및 설치 서비스인 ‘로켓설치’와 결합해 한 차원 높은 쇼핑 경험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가구 보험 도입은 고객 경험을 한 단계 더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쿠팡만의 차별화한 혜택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